

##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과 논리적 사고<sup>1)</sup>

최 훈\* · 최 승 기\*\*

**주제분류** 논리학, 논증 이론

**주요어** 12명의 성난 사람들, 영화, 논리적 사고, 의심할 만한 근거, 화용-대화론, 철회가능성

**요약문**

이 글은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에서 논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을 찾을 수 있고 그것으로 논리적 사고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2절에서는 논쟁을 주고받을 때 입증의 책임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영화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논쟁 당사자 간에 입증의 책임이 정해진 다음에는 실제로 논쟁이 진행된다. 3절에서는 이 영화에서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을 논증의 ‘철회가 능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근거가 어떻게 제시되고 어떤 방식으로 철회(논박)되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마지막 4절에서는 이 영화를 이용해 논리학 수업에서 학생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몇 가지 오류들이 제시된다.

---

\* 강원대학교 교수

\*\* 강원대학교 강사

1) 심사위원의 날카로운 지적 덕분에 논문의 중요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었다.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 1. 머리말

최근 철학 수업에서는 영화 등의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영상 세대’인 젊은 학생들에게 추상적인 철학 주제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글쓴이들 중 한 명은 형이상학 주제인 ‘개인 동일성’ 문제를 수업할 때 영화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다.<sup>1)</sup> 그리고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의 여러 주제들을 다룰 때 적합한 영화들은 여러 도서들에서 거론되고 있다.<sup>2)</sup> 특히 철학의 이 영역들에서 즐겨 사용되는 사고 실험은 특정 이론을 주장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 각종 SF 영화들에서 이런 사고 실험이 영상으로 구체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화는 훌륭한 수업 소재가 되고 있다.

그런데 논리학 영역에서는 수업에 적절한 영화를 찾기가 어렵다. 그 까닭은 논리학의 주된 임무는 논증의 분석과 평가인데, 논증은 명제적 형태로 되어 있지만 영화에서는 논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상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상의 형태로 된 논증을 명제로 바꿀 수는 있지만 그 변환 과정은 명확하거나 용이하지 않으며,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한 영화에서 발굴할 수 있는 논증은 몇 개 안 된다는 어려움이 있다.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영역에서 즐겨 이용되는 사고 실험은 그것 자체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 편의 영화에서 하나의 이야기거리를 찾아도 충분히 수업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한 편의 영화에서 한두 개의 명제적 논증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문자 매체에는

- 
- 1) 최훈, “개인 동일성 수업에서 영화의 활용”(『철학탐구』 18집, 2005, 215-236쪽)을 보라.
  - 2) 다음 책들을 보라. 김성환, 『나는 본다, 철학을』(동녘, 1998); 박병철, 『영화 속의 철학』(서광사, 2001); 김용규, 『영화관 옆 철학카페』(이론과실천, 2002); 이왕주, 『철학, 영화를 캐스팅하다』(효형출판, 2005); 매리 리치, 『영화로 철학하기』(이종인 옮김, 시공사, 2004); 마크 롤랜즈, 『SF 철학』(조동섭 외 옮김, media2.0, 2005); 크리스토퍼 팔존, 『영화가 된 철학』(김성민, 김익현 옮김, 인간사랑, 2005); 박병철, 『생각의 창, 키노아이: 영화 속의 철학 2』(서광사, 2009).

그 이상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논리학 수업에서는 굳이 영화를 참조할 이유가 없게 된다.

시드니 루멧 감독의 <12명의 성난 사람들>은 영상 매체가 갖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점을 극복하면서 논리학 수업에서 쓰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영화이다. 1957년에 흑백으로 나온 이 영화는 대부분의 장면이 아버지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17세 소년의 유죄 여부를 평결해야 하는 12명의 배심원들이 한 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대사는 거의 그대로 명제적 논증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것들 자체가 논리학의 더할 수 없이 좋은 논증 사례가 된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논리학 교재의 논증들보다 더 뛰어난 사례들이 될 수 있다. 논리학 교재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논증 사례들이 대화 상황에서 벗어난 논증들인 데 비해 이 영화의 논증들은 생생한 대화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인데, 논증에 대한 설명 모형 중 실용적인 대화 상황 속에서의 논증을 강조하는 화용-대화론(pragma-dialectics)에 접목하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sup>3)</sup> 그리고 <12명의 성난 사람들>은 대사로 주고받는 논쟁이 영화에서 주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영화라는 매체임을 숨길 수 없으므로 대사 이외에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얼굴 표정, 소품 등도 스토리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논증의 논리적인 측면과 수사적 측면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이 영화는 논증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논리적·대화적·수사적 측면을 모두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교양 수준의 논리학을 넘어 논증 이론을 교육하는 데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sup>4)</sup> <12명의 성난 사람들>은 꽤 오래된 영화이고 대사 이외의 다른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행히 탄탄한 구성과 전개로 영화 자체로도 재미를 준다.

3) 화용-대화론에 대해서는 박지희, 『논증활동의 화용-대화론(pragma-dialectics)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와 이 논문의 2절을 보라.

4) 논증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Douglas Walton, *Media Argumentation: Dialectic, Persuasion, and Rhetoric*(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1장을 보라.

논리학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올바른 논증과 올바르지 않은 논증을 구분하는 것이고, 논증은 근거(전제)와 주장(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논리학은 근거가 주장을 올바르게 그리고 얼마나 잘 지지하는지 탐구하는 작업이고, 이에 따라 논리학 교육은 전제와 결론의 관계의 평가에 치중해야 한다. 그러나 논증을 단순히 근거와 주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바라보는 것은 그 논증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맥락을 제거하고 그 결과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논증은 추상화된 어떤 대상이 아니라, 어떤 진술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가진 논증 참여자들이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는 언어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논증에 대한 이런 입장 중 대표적인 이론은 네덜란드의 언어학자·논리학자들인 에메런과 그루텐도르스트가 주장한 ‘화용-대화론’이다.<sup>5)</sup> 그들에게서 논증이란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진술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대립과 갈등이 노출되고 설득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상호 간에 노력하는 언어활동의 과정이다.

<12명의 성년 사람들>은 화용-대화론적으로 구현된 논리학의 목적을 더할 나위 없이 잘 구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영화 내내 올바른 근거(증거)를 찾는 과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2절에서 설명하겠지만, ‘의심할 만한 근거’는 이 영화에서 가장 핵심 용어 중 하나이다. 그 외에도 어떤 주장을 하려면 무슨 근거로 그런 근거를 제시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대사가 자주 나온다.

11번6): 그 근거를 말 해봐요.

- 
- 5) F. H. van Eemeren, and Rob Grootendorst, *A Systematic Theory of Argumentation: The Pragma-Dialectical Approach*(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와 박지희, 『논증활동의 화용-대화론(pragma-dialectics) 연구』를 보라.
- 6) <12명의 성년 사람들>은 12명의 배심원들이 등장인물들인데, 영화에서 각 사람에게 번호가 부여되고 배심원실에서 회의를 할 때도 번호 순서로 앉는다. 이 논문에서 번호는 배심원 번호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우리말 대사는 기본적으로 2008년에 피터팬픽처스에서 나온 DVD의 자막을 이용하였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거나 첨가하였다.

7번: 무슨 근거로 그러는 거요.

12번: 증거를 다 고려해봐야죠.

또 그렇게 제시된 근거들 중 적절한 근거와 적절하지 않은 근거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는 대사도 자주 나온다.

4번: 내가 보기엔 이보다 탄탄한 증거는 없소.

3번: 다른 증거는 버려요.

8번: 이런 증거로 사람을 죽게 할 순 없어요.

논리학에서 올바른 근거를 찾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줄 수 있고 또 그 작업을 실제 관찰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좋은 소재인 것이다.

이 글은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에서 논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을 찾을 수 있고 그것으로 논리적 사고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2절에서는 논쟁을 주고받을 때 입증의 책임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영화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논쟁 당사자 간에 입증의 책임이 정해진 다음에는 실제로 논쟁이 진행된다. 3절에서는 이 영화에서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을 논증의 ‘철회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근거가 어떻게 제시되고 어떤 방식으로 철회(논박)되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마지막 4절에서는 이 영화를 이용해 논리학 수업에서 학생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몇 가지 오류들이 제시된다.

## 2. 입증의 책임

어떤 주장이 참 또는 거짓임을 모른다는 전제로부터 그 주장이 참 또

는 거짓을 추론하는 논증인 무지에의 호소(argumentum ad ignorantiam)는 많은 논리학 교과서에서 오류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글쓴이들 중 한 명은 무지에의 호소 논증의 오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입증의 책임(burden of proof)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곧 입증의 책임이 있는 쪽은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을 사용하면 그 논증은 오류이나, 입증의 책임이 없는 쪽은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을 사용해도 오류가 아니라는 것이다.<sup>7)</sup> 이러한 주장이 가장 잘 적용되는 분야가 법정이다. 의심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입증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무지에 호소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한다고 해도 오류가 아니다. 반면에 입증의 책임이 있는 검사가 무지에 호소해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한다면 그것은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가 된다. 예를 들어 다음 두 논증을 보자.

논증 1: 피고인에게 죄가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이다.

논증 2: 피고인에게 죄가 없음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유죄이다.

위 논증들은 모두 무지에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논증인 논증 1은 오류가 아니지만, 검사의 논증인 논증 2는 오류이다.

<12명의 성년 사람들>은 이러한 법정에서의 입증의 책임 개념과 오류 여부를 실제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입증의 책임은 모든 논쟁 상황에서 중요하지만 논쟁이 어느 쪽에서 승리하는지가 반드시 판가를 내야 하는 법정 상황에서는 특히 더 중요하다. 이 영화에서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판사는 영화가 시작할 때 배심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길고 복잡한 일급 살인죄에 대한 청문이 끝났습니다. 계획된 살인은 이 법정에서 다루지는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증언도 들었고 법 해석도 다 들었으니 이제 여러분의 임무는 사실을 판단하는 겁니다. 한 사

7) 최훈, “무지에의 호소 다시 보기”(『논리연구』, 14권 2호, 2011, 77-103쪽).

람이 죽었고 한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죄 평결을 내려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에게 유죄 평결을 내려 주십시오.** 어떤 결정이든 만장일치가 돼야 합니다. 일단 유죄로 평결하면 재판관의 자비는 없을 겁니다. 이 경우 사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여러분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굵은 글씨는 글쓴이들의 강조임.)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의심할 만한 근거’이다. 의심할 만한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죄 평결을 내리는 것이 현대 재판의 근본 원칙이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 doubt)을 넘어서는 근거를, 다시 말해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제시할 수 있는 의심할 만한 근거를 잠재울 입증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런데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했다면, 판사의 말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것은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위 판사는 결국 논증 1처럼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판사의 이러한 말은 무지에 호소하고 있으므로 오류가 아니냐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법정에서의 ‘무죄’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된다. 법정에서의 ‘무죄’는 ‘죄가 없다’, ‘깨끗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혐의가 없다’라는 뜻이다. 곧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뜻이다. 따라서 논증 1에서 ‘무죄’를 ‘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로 대체하면, 논증 1은 결국 다음과 같은 진술이 된다.

논증 3: 피고인에게 죄가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죄가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것은 동어반복이므로 세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않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을 다른 시각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뿐이

다. 그러나 그 자체로 틀린 진술은 아니다.<sup>8)</sup> 판사의 발언은 그 구조가 논증 1과 같으므로 역시 당연하게 옳은 말이 된다.

영화 <12인의 성년 사람들>의 배심원들 중에서는 입증의 책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영화를 보면서 학생들에게 입증의 책임 개념을 토론할 수 있는 대사를 찾아보게 하거나 그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배심원을 찾아보게 하는 활동을 통해 입증의 책임 개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영화 초반부에 배심원실에서 처음으로 투표를 했을 때 다른 배심원들은 모두 유죄에 손을 들었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격인 8번 배심원(제인 폰다 분)만 유일하게 무죄에 손을 들었다. 그에 대해 2번 배심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2번: 설명하긴 힘들지만 유죄라고 믿어요. 아니라고 증명을 하지도 못했잖아요.

피고인이 무죄임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그는 유죄라는 것이다. 이런 논증은 논증 2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이 잘못된 논증임을 파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영화에서는 이 대사에 바로 이어서 8번 배심원이 2번의 주장이 잘못임을 지적한다.

8번: 그럴 필요가 없죠. 검사가 할 몫이니깐요. 피고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게 법입니다.

8번은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검사 쪽에 입증의 책임을 지우

---

8) 최훈, “무지예의 호소 다시 보기”, 93쪽을 보라. 심사위원 중 한 분은 ‘무죄’를 ‘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보다는 ‘유죄로 판결 내릴 근거가 없다’나 ‘혐의 없다’로 대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제안해 주셨다. 그러나 필자의 의도는 논증 3이 당연하게 옳은 말이어서 오류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 있으므로, ‘무죄’를 ‘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는지 학생들에게 이유를 물을 수 있다. 이 영화에서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대사들이 나오므로 학생들에게 스스로 찾게 한다.

8번: 아홉 명은 피고가 무죄라고 느끼는데, 이것도 확률의 도박이고 우리가 틀릴 수도 있죠. 어쩌면 죄인을 풀어 주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다면, 그게 우리 법체계의 우수함 점인데, 배심원들은 확실하지 않으면 유죄선고를 내릴 수가 없죠.

8번 배심원은 다른 배심원들을 상대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무죄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을 끈질기게 설득한다. 바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피고인이 사실은 유죄인데 무죄라고 풀어주는 잘못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 것을 막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두 경우, 그러니까 피고인이 사실은 유죄인데 무죄라고 풀어주는 경우와 사실은 무죄인데 유죄로 처벌하는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대사들이 있다. 첫 번째 경우를 우려하는 대사는 다음과 같다.

6번: 무죄라고 생각하죠?

8번: 몰라요, 그럴 수도 있죠.

6번: 맥을 잘 모르지만 고집이 센 사람 같군요.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8번: 본인이 피고인라고 가정해 보세요.

6번: 결국 무죄라고 판결을 냈는데 그 애가 정말 아버지를 죽였다고 가정해 봐요.

6번 배심원은 피고인을 무죄로 방면했는데 사실은 유죄였다고 가정해 보라고 한다. 진범을 풀어준 결과가 되므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또 다른 범죄도 유발할 수 있음을 그는 우려한 것이다.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를 보여주는 대사를 보자.

8번: 전철이 지날 땐 목소릴 알아듣기 힘듭니다.

3번: 몇 초 동안인데 어떻게 정확해요?

8번: 이 증언 때문에 사람이 죽는데 당연히 정확해야죠.

배심원 3번은 피고인이 유죄임을 보여주는 증거에 대해 8번이 ‘합리적인 의심’을 보이자, 그것에 대해 그렇게까지 ‘정확해야’ 되느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자 8번은, 영화가 시작할 때 판사가 말한 것처럼, 유죄 판결 시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한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임을 들어 합리적으로 의심이 들 때는 그 의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유죄인데 무죄로 판결하거나 무죄인데 유죄로 판결할 수도 있으므로 두 경우의 가능성이 모두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가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유죄라고 주장하는 쪽에 더 무거운 입증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제 무죄라는 확신이 있어야 무죄라고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유죄라는 확실함,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확실함이 있을 때에만 유죄라고 선고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8번 배심원의 이러한 설득에 유죄라고 생각했던 다른 배심원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9번 배심원은 마음을 바꾼 이유에 대해 8번 배심원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9번: 이 신사 분은 혼자 반대 의견을 냈소. 그 애가 무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치 않다는 거죠.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지 못하지만 유죄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무죄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11번 배심원도 유죄에서 무죄로 의견을 바꾼다. 3번 배심원은 그 이유를 묻는다.

3번: 왜 결정을 바꿨는지 이유나 들어봅시다.

11번: 내 결정을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으니까요.

11번은 입증의 책임 개념에 대해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피고인 입장에서 왜 무죄인지를 ‘설명할’ 책임이 없다.) 거꾸로 유죄 평

9) “내 결정을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라는 배심원 11번의 대사는 국내에서 출시된

결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무죄라고 평결해도 입증의 책임을 다한 것이다.

‘의심할 만한 근거’는 여러 배심원들에게 의견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된다. 2번 배심원도 이렇게 말한다.

7번: 왜 마음을 바꿨소?  
2번: 의심의 여지가 있어 보였어요.

4번 배심원도 마지막 순간에 유죄에서 무죄로 의견을 바꾼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4번: 의심할 만한 근거가 생겼어요.

7번 배심원도 유죄에서 무죄로 의견을 바꾼다. 그리고 11번 배심원과 다음과 같은 말을 주고받는다.

11번: 유죄요, 무죄요?  
7번: 말했잖아요, 무죄라고  
11번: 왜요?”  
7번: 이봐요, 꼭 설명을 해야...  
11번: 설명해요, 말해요, 왜죠?  
7번: (낮은 목소리로) 유죄가 아닌 것 같으니까.

이 대목에서 7번 배심원의 마지막 대사는 무지에의 호소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고 학생들에게 물을 수 있다. “유죄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이다.”라는 논증이기 때문이다. 입증의 책임 개념과 무지에의 호소 논증의 관계를 잘 이해한 학생들은 이 논증은 무지에 호소하고 있지만 오류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

DVD의 자막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다. 원문은 “I don’t have to defend my decision to you.”이다.

3번 배심원은 마지막까지 피고인의 유죄를 고집하는 인물이다. 그는 영화의 끝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3번: 문까지 못 갔다는 것도 증명 못 하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증명도 못 하잖아.

피고인의 아래층에 사는 노인은 위층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리자 침실에서 15초만에 문까지 가서 피고인이 살인 후 내려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한다. 8번 배심원은 그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3번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까지 못 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가? 아니면 문까지 갔다는 노인의 증언이 믿을 수 없다는 것만 증명해도 되는가? 다시 말해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입증의 책임이 있는가, 아니면 상대방 주장이 틀렸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가? 입증의 책임을 이해한 학생이라면 후자로 충분하다고 대답할 것이다.<sup>10)</sup>

법정에서 입증의 책임은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에게 있다고 했지만, 검사 쪽에서 피고인이 유죄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제시된 다음에는 입증의 책임은 피고인에게 넘어간다. 이 영화에서는 그러한 증거들이 여러 가지 제시된다. 이 증거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지’ 검토하는 과정이 이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다음 절에서 그 과정을 살펴보자. 지금까지는 어느 쪽이 먼저 증거를 제시해야 하느냐는 ‘메타-증거적’인 차원의 논의였다면 지금부터는 그 증거를 직접 고려해 보는 ‘증거적’인 차원의 논의

10) Burkhard Schafer, “Twelve Angry Men or One Good Woman?: Asymmetric Relations in Evidentiary Reasoning”(in Hendrik Kaptein ed., *Legal Evidence and Proof: Statistics, Stories, Logic*, Ashgate, 2009, 255-282쪽), 263쪽에서 3번 배심원의 위와 같은 주장은 ‘법적인’ 입증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입증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자비롭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검사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 다음에는 그것을 반박할 입증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3번 배심원의 위 대사가 ‘법적인’ 입증의 책임을 말한 것인지, ‘전략적인’ 입증의 책임을 말한 것인지, 그리고 후자라고 한다면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는지는, 역시 학생들과 함께 토론해 볼 만한 주제이다.

가 될 것이다.

### 3. 비판적 토의 모형의 적용

논증을 전제와 결론의 집합으로 좁게 보는 시각에서는 전제와 결론 사이에 성립하는 논리적 관계에만 관심을 보이겠지만, 화용-대화론적 접근에서는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언어활동에 관심을 보일 것이다. 언어활동으로서의 논증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화자와 청자의 역할이 한 번씩 교환되는 대화 상황이다. 화자와 청자는 비판적 토의(critical discussion)를 통해 의견 차이의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화용-대화론은 의견 차이의 해소가 이루어지는 4가지 단계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대면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어떤 입장과 그 입장에 대한 거부 사이의 대면이 이루어진다.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개시 단계로서, 논쟁 당사자가 정해진다. 한 쪽은 주창자(protagonist)이고, 다른 쪽은 반대자(antagonist)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들이 무엇이고, 동의하는 출발점과 규칙이 무엇인지도 드러난다. 세 번째 단계는 논증 단계이다. 주창자는 반대자의 비판적 대응에 맞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한다. 마지막 결론 단계에서 논의의 결론이 무엇인지가 결정된다.

등장인물의 대화로 이루어진 영화는 화용-대화론적 접근에서 구체적인 논증을 분석해 볼 가장 좋은 소재이다. 위 4가지 단계가 <12명의 성난 사람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해 보자.

우선 <12명의 성난 사람들>은 대면 단계(confrontation stage)에서 8번 배심원을 제외한 모든 배심원들이 피고인 소년의 유죄를 표명한다. 이는 예비 투표를 통해 제시된다.

다음으로 개시 단계(opening stage)에서 배심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정보를 공유한다. 이 과정은 12번 배심원이 다음과 같이 8번 배심원이 틀렸음을 설득하자고 제안함으로써 진행된다.

12번: 이걸 어떻게요? 방금 생각난 건데 우리가 저분 생각이 틀렸다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각자 몇 분씩 얘기를 하면... 그냥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각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유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한다. 그 증거들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1) 아버지를 죽이는 데에 사용된 독특한 외양의 칼: 피고인인 소년은 살인이 일어난 날 저녁에 아주 독특한 외양의 칼을 샀는데 이것은 피해자의 가슴에 꽂힌 칼과 같은 칼이며, 피고인은 칼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한다.
- 2) 아래층에 사는 노인의 증언: (a) “죽일 거야.”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후에, 몇 초 지난 다음에 몸이 쓰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b) 아파트 문으로 걸어가서 문을 열자, 층계를 달려 내려가는 소년을 보았다.
- 3) 중년 여성의 증언: 전철이 지나는 순간에 소년이 아버지를 죽이는 모습을 길 건너편 방에서 목격하였다.
- 4) 소년의 알리바이: 사건 발생 시각에 영화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영화의 제목이나 배우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입장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논증 단계(argumentation stage)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때 논증의 **철회가능성(defeasibility)** 개념을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화의 과정에서 논증이 제시되고 이를 논박하는 과정에서 논증이 철회되기도 하는데, 서로 다른 논증을 공격하거나 철회하는 논증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sup>11)</sup> 먼저 **반증하는 철회 논증(rebutter defeater)**은 결론을 거부하는 근거를 직접 제시함으로써 결국 주장 혹은 결론을 공격한다. 다음으로 **약화시키는 철회 논증(undercutting defeater)**은 주장을 직접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주장과 근거의 관계를 공격한다. 이 영화에서 이루어지는 증거

11) J. Pollock, *Cognitive Carpentry*(Cambridge, Mass: MIT Press, 1995), 41쪽.

의 논박은 약화시키는 철회 논증이 주로 쓰이고 반증하는 철회 논증은 대안 논증을 제시하는 경우 정도에 쓰인다. 똑같은 결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두 철회 논증이 모두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약화시키는 철회 논증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약화시키는 철회 논증은 상대방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이면서도 다만 그 결론을 지지하는 근거만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결론 자체를 거부하는 반증하는 철회 논증에 비해서 상대방 논증의 결론을 완벽하게 반박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2절에서 말했듯이 피고인 쪽에는 입증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기한 근거와 주장의 관계를 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의 책임을 다한 것이 된다.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가 무효화되어 유죄라는 증거가 더 이상 없는 이상, 피고인은 무죄라고 결론을 내려도 되고 이런 논증은 앞에서 본 것처럼 무지에의 호소 오류가 아니다.

영화에서는 예비 투표를 한 다음에 증거를 약화시키는 새로운 정보가 제시된 후에 네 번의 표결을 거쳐 배심원들은 자신의 원래 입장을 바꾸게 된다. 첫 번째 투표에서 9번이 무죄를 선택하게 되어 반대자가 한 명 더 늘어나게 된다. 두 번째 투표에서는 5번과 11번이 무죄로 변경한다. 세 번째 투표에서는 2번과 6번이 선택을 바꿈으로써 6:6으로 극적인 모습을 연출한다. 마지막으로 중년 여성의 증언에 대한 약화로 인해 1번(배심장), 7번, 12번이 결정을 번복하게 된다.

소년이 유죄임을 지지하는 증거들은 논쟁이 전개되면서 검증받게 된다. 두 번째 투표를 하기 전까지 주요 증거품인 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흔하지 않은 외양 때문에 강력한 유죄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8번 배심원이 동일한 모양의 칼을 제시하고 범죄가 일어난 동네에서 샀다고 말하자 이것은 독특하다는 증거를 반박하므로 배심원들이 술렁이게 된다. 또한 칼의 지문을 없앨 정도의 침착한 태도를 보인 피고인이 범죄 현장에 다시 나타난 점은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반박들도 칼이 소년의 유죄임의 증거가 된다는 논증을 약화시키는 철회 논증의 사례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유죄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두 명의 증인, 곧 노인과 중년 여성이 등장했다. 8번 배심원은 증인에 대해, 증인이 내놓은 증언에서 모순을 찾는 방법과 증인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 방법, 그리고 유력한 증거에 대해서 대안이 되는 설명이 있음을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증거로서의 가치를 논박한다. 먼저 노인의 증언을 재검토하는 과정은 세 번째 투표 직전까지 진행되는데, 노인의 증언 내부에서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여 증언을 반박한다. 노인은 침실에서 문까지 15초 정도가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리가 불편한 노인이 침실에서 문까지 걸어가서 범인을 확인하는 데에 40초 넘게 소요된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런데 노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같은 노인이 9번 배심원이 그럴듯한 대안 설명을 해 준다.

3번: 왜 거짓말을 했겠소?

9번: 주의를 끌려고요.

이것은 상대방의 결론(“노인의 증언은 믿을 만하다.”)을 직접 반박하는 반증하는 철회 논증이다. 그러나 반박이 성공했을까? 똑같은 현상에 대해 경쟁하는 두 설명이 제시되었다. 한 설명은 피고인임이 유죄임을 입증하고 있고, 이에 비해 대안이 되는 설명은 무죄임을 입증한다. 똑같은 설명력이라면 어느 쪽 설명을 신뢰해야 할까? 여기에서도 2절에서 말한 입증의 책임이 개입된다. 똑같은 설명력이라면 피고인이 유죄임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뜻이므로, 평결의 추는 무죄 쪽으로 기울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유죄를 주장하던 3번 배심원의 노인에 대한 언급은 증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까지 한다.

3번: 20초요.

8번: 15초됐소.

3번: 20초됐소. 왜 왜곡을 합니까?

8번: 15초됐어요.

3번: 15초가 어느 정도지 어떻게 알아요?

9번: 15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3번: 나이도 많고 오락가락 했잖아요. 뭐 하난들 확실하겠어요?

노인의 증언을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던 3번 배심원은 8번 배심원이 노인의 신뢰성을 물고 늘어지자 결국에는 위와 같은 발언을 하고 만다. 3번 배심원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스스로 모순을 저질렀음을 깨닫고 떳떳해 한다. 노인의 증언에 기대어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했는데, 스스로 증인이 신뢰성이 없는 사람임을 입증했으므로 그 확신은 철회되어야 한다. 노인의 증언을 이용한 증거는 더 이상 증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논증의 철회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것 또한 약화시키는 철회 논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약화의 근원이 상대방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모순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후의 논의에서 노인에 대해 신뢰성을 갖는 발언은 등장하지 않는다.

네 번째 표결 전까지 검토된 내용은 소년의 알리바이와 범행에 사용된 칼에 관한 것이다. 소년이 체포된 후 영화 제목과 출연 배우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 것은 유죄 판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대안이 되는 설명이 제시된다. 체포 직후에 놀란 상황에서 기억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배심원 4번과 8번의 대화에서 확인되었다. 4번 역시 자신이 며칠 전에 본 영화의 제목과 배우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칼이 꽂힌 각도는 소년이 그 칼을 사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음을 의심할 만한 증거로 언급되었다. 빈민가 출신인 배심원 5번은 칼을 잘 사용하는 소년이 범인이라면 절대 그 각도로 찌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한다. 소년의 알리바이와 관련된 대안 설명의 경우는 반증하는 철회 논증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칼이 꽂힌 각도는 약화시키는 철회 논증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강력한 증거인 증년 부인의 목격에 관한 내용은 마지막 표결 이후에 검증된다. 이 증거는 12번 배심원이 자신의 입장을 재차 반복할 정도로 결정적인 증거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9번 배심원은 증인의 콧등에

있는 안경자국을 기억해냄으로써 증인이 안경을 썼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일반적으로는 잠자리에 들 때 안경을 쓰지 않으며 어두운 밤에 2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목격했다는 점에서, 증인의 목격을 의심할 만하다고 결론 내리게 된다. 여기에서 잠자리에 들 때 안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일종의 편견이며(편견은 8번 배심원이 3번 배심원을 공격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일종의 성급한 일반화가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하다.<sup>12)</sup> 그러나 잠자리에 들 때 안경을 쓰지 않는다는 의심이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입증의 책임 원칙에 따라 중년 부인의 증언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야 한다. 마지막 증거는 일반적인 관찰 상태의 예외를 보여줌으로써 증인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들므로 이 역시 약화시키는 철회 논증에 해당한다. 이유는 노인의 증언에 대한 설명과 동일하다.

또한 모순된 진술이 제시될 경우 논증이 약화된다. 이는 논증이 요구하는 합리적 태도를 위반하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한 추리에 어긋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모순된 진술이 언급된 사례로 노인의 증언에 대해 3번 배심원이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았다. 그 외의 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3번: 이거 봐, 죽여 버릴 거야. 죽일 거야!

8번: 정말 날 죽이겠다는 뜻은 아니겠죠?

3번 배심원은 피고인이 피살자에게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한 것을 노인이 들었다는 증언을 토대로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했다. 그러자 8번 배심원은 그런 말은 화가 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정말로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던 3번 배심원은 8번 배심원과 다른 주제로 다투다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고 만다. 그리고 8번 배심원은 3번 배심원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깨닫게 만든다. 여기서

12) Schafer, “Twelve Angry Men or One Good Woman?: Asymmetric Relations in Evidentiary Reasoning”, 265쪽에서 이러한 비판이 제기된다.

도 3번 배심원은 자신의 확신을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모순이 드러나면 애초의 논증을 철회하게 만드는 장면은 그 외에도 여러 번 등장한다.

10번: 사실은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는 거요.

9번: (8번을 가리키며) 그게 바로 이 신사분 얘기잖아요.

또,

8번: (빈민가 출신의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10번에게) 뭐 하나 물어보죠. 그 애 애긴 안 믿고 여자 애긴 믿어요? 같은 통속인데.

이와 같이 논증 단계에서는 활발하게 논증을 주고받는다. 영화에 등장하는 각각의 증거는 전제로 기능하고 결론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2인의 성난 사람들>에 제시된 논증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형식 논리학의 논증 평가 기준인 전제의 수용가능성(acceptability), 결론과의 관련성(relevance), 충분성(sufficiency)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sup>13)</sup> 특히 전제의 수용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신의 상황이나 편견에 기반해 전제를 수용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3번 배심원은 자신과의 불화로 가출한 아들에 대한 원망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으며, 10번 배심원은 빈민가 출신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 이해관계도 개입하는데, 배심원 7번은 야구경기 입장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될까봐 입장을 수시로 바꾸었으며, 배심원 10번은 빨리 끝내고 사업체를 돌보려고 생각했다. 이 편견은 4절에서 오류를 검토하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결론 단계(concluding stage)에서 대부분의 증거는 결정적

13) 이 기준에 대해서는 최훈·최승기, “논증 평가 기법 개발”(『수사학』 9집, 2008, 173~197쪽)을 보라.

이지 않은 것으로 판명나고, 피고인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가설은 입증되지 못한다. 결국 모든 배심원들은 8번 배심원에 동의하게 됨으로써 ‘의심할 만한 근거’를 갖게 된다.

#### 4. <12명의 성난 사람들>의 오류들

논리학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오류이다. 제시된 논증에서 어떤 잘못이 있는지 찾아내는 것은 논증 평가 활동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며, 그런 활동은 스스로 논증을 구성할 때도 올바른 논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12명의 성난 사람들>은 여러 논증으로 이루어진 만큼 여러 가지 종류의 오류를 찾을 수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대화에서 오류들을 찾아보도록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오류로 의심되는 논증들이 정말로 올바르지 않은지 토론하도록 할 수 있다.

먼저 **대중에의 호소**(*argumentum ad populum*)을 보자. 이것은 어떤 주장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는 논증을 말한다. <12명의 성난 사람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사들에서 대중에 호소하는 논증을 사용하고 있다.

7번: 무슨 얘기를요? 열 한 명이 유죄라는데.

2번: 11명이 유죄라고 생각하잖아요.

두 사람 모두 영화 초반부에서 유죄 여부를 투표할 때 한 명을 제외한 11명이 유죄로 평결한 것을 근거로 피고인이 유죄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영화 초반부에서 유일하게 무죄를 주장했던 8번 배심원은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른 배심원들을 설득해 나가는데, 영화 끝 부분에서는 이제는 3번을 제외한 모든 배심원들이 무죄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자 8번은 배심원 3번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

8번: 형씨 혼자요.

배심원 8번도 영화 초반부에서 다른 배심원들이 자기에게 썼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중에 호소하고 있다. 당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당신의 의견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거나 당신의 의견을 바꾸어야 한다는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대중에의 호소는 올바르지 않은 논증 방법인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오류 여부를 함께 토론해 볼 수 있다.

코피는 대중에의 호소가 동정심에의 호소, 공포심에의 호소와 함께 “너무나 명백한 오류이므로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심지어 뻔뻔스럽기까지 한 것”이라고 말한다.<sup>14)</sup> 어떤 주장을 제시하는 사람이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대중에만 호소한다면 위와 같은 혹평을 들어도 싸다. 어떤 주장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하느냐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참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그러나 대중에 호소하는 논증을 하는 의도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데에는 뭔가 설득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 그러므로 그 주장의 근거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라면 그 논증을 오류로 치부하는 것은 성급하다. 화용-대화론의 주장처럼 그 논증이 사용되는 실제 대화의 상황 속에서 그 논증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대중에의 호소가 대중들이 그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를 검토하게 하는 계기가 되거나 실제로 그 근거들을 검토한 다음에 근거들의 설득력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인 것이라면 오류라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영화 초반부에서 7번이나 2번 배심원들은 다른 근거들의 제시 없이 대중에의 호소만으로 8번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데, 그런 대중에의 호소는 오류의 혐의가 짙다. 반면에 영화 끝부분에서 8번이 대중에 호소한 것은, 피고인이 유죄라는 근거들을 하나하나씩 반박한

14) 코피·코헨, 『논리학 입문』 (박만준 외 옮김, 경문사, 2000), 170쪽. 대중에의 호소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최훈·남인용, “광고 논증의 논리학적 평가”(『커뮤니케이션 연구』, 6권 2호, 2010, 82-117쪽)를 보라.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른 모든 배심원들은 그 논증에 설득이 되었으므로 당신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올바른지 않은 논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8번의 대사 다음에 다음과 같은 대사가 이어진다.

3번: 혼자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내 권리니까.

8번: 당신 권리죠.

배심원 3번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자신의 의견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배심원 8번은 그 주장이 옳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의 의견 일치를 압박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있다. 3번은 이어서 자신의 근거를 다시 검토하여 자신의 의견을 틀렸음을 인정한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의견을 갖고 있음은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역할을 한 셈인데, 이것은 잘못된 논증 방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인신공격과 같은 **사람에의 호소**(*argumentum ad hominem*)도 이 영화에서 자주 등장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일을 근거로 어떤 주장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영화 초반부에 피고인이 유죄라고 확신한다는 배심원 중 한 명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한다.

4번: 빈민가에서 태어나 범죄의 소굴에서 자란 건 다 아오. 빈민가에서 자란 애들은 잠재적인 사회악이오.

피고인이 빈민가에서 자랐다는 개인적인 특성이 그가 유죄라는 근거가 될까? 학생들에게 이러한 근거는 논점일탈인지 아닌지 물어볼 수 있다. 실제로 다른 배심원들은 4번 배심원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동조를 하기도 하고 반박을 하기도 한다.

10번: 거 말 한번 잘했소. 그런 애들은 쓰레기요. 절대 봐줘선 안 되지.  
5번: 이봐요. 나도 평생 빈민가에서 살았소.  
10번: 잠깐만요.  
5번: 들어요. 나도 쓰레기가 뒤덮인 곳에서 놀았소. 아직도 냄새가 날  
      거요.  
10번: 잠깐만요.  
1번(배심장): (5번에게) 인신공격이 아니요.  
5번: 인신공격이나 마찬가지요.

5번 배심원은 빈민가에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인범이라는 주장과 아무 상관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자신도 빈민가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배심장은 5번이 그 이전의 4번의 주장을 인신공격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5번은 인신공격이 맞다고 대꾸하고 있다.<sup>15)</sup> 인신공격은 이 영화에서 또 등장한다.

10번: 그런 녀석을...  
9번: 그 애가 어떤 애인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사실로만 판단해야죠.

9번 배심원의 발언은 사람에의 호소가 오류인 이유를 마치 논리학 교과서의 정의처럼 보여 준다. 어떤 진술이 옳은가 그른가는 그 진술이 관련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와는 상관없고’ 그 진술이 관련된 ‘사실로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사람에의 호소 오류가 말해 주는 바이기 때문이다. 또 영화 후반부에서 유죄 대 무죄가 3대9로 바뀌자 끝까지 유죄임을 주장하는 10번 배심원은 다음과 같이 길게 말한다.

---

15) “인신공격이 아니요.”라는 배심장의 대사의 원문은 “There’s nothing personal.”이다. 우리말로로는 “시비 거는 게 아니요.”라고 번역되어 있다. 인신공격은 논점과 상관없는 근거를 가지고 ‘시비 거는’ 것이므로 상황에 맞는 좋은 의역이라고 볼 수 있다.

10번: 이해할 수가 없군. 그런 사소한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소. 다들 그 애를 봤잖소. 칼을 잃었던 말을 믿는단 말이요? 그리고 영화 얘기도? 그런 자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해요. 말 안 해도 알잖소. 진실이 뭔지도 몰라요. 이유가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오. 술에 취하면, 하나같이 다 주정뱅이에다 아무나 찢러대죠. 그 사람들 닮하는 게 아니라 원래 천성이 그렇단 말이오. 폭력적이 지. 어디 가는 거요? 그 사람들에게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이나 같아요.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누가 죽어도 신경도 안 쓰지. 물론 좋은 사람도 있죠. 이런 말은 내가 처음일 거요.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을 알지만 예외란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감정도 없고 무슨 짓이든 저지르지. 뭣들 하는 거요? 내 말 들어요, 실수 하는 거요. 개는 거짓말쟁이요. 난 알아요, 다 안다고요. 내 말 들어요. 전부 하나같이 쓸모없지. 도대체 뭐 하는 거요? 난 할 말을 하는데... 내 말 들어요. 이런 종류의 애들은... 잘 알잖아요. 위험하다고요. 그런 부류는 위험해요. 거칠다고요.

이 말에 대해 8번 배심원은 다음과 같이 응수한다.

8번: 이럴 때 개인적 편견이 드러나게 마련이죠. 언제나 편견이 진실을 가립니다.

근거 없는 인신공격은 편견에서 비롯됨을 8번 배심원은 잘 지적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빈민가에서 자랐다가거나 거짓말을 잘 한다거나 싸움을 잘 한다거나 하는 개인적인 특성은 그 사람이 살인범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당연히 근거가 될 수 없다. 그가 살인범인지 아닌지는 그가 그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는 구체적인 증거로 판단해야지 그러한 개인적인 특성과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위에서 9번 배심원은 그것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곧 논점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8번 배심원은 살인 사건의 목격자인 노인이 목격 당시 안경을 벗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 노인은 눈이 나쁘므로 노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8번: 여자의 시력이 문제가 됩니다. 안경도 없었고 밤에다 20미터나 떨어져 있었어요. 이런 증거로 사람을 죽게 할 순 없어요.

눈이 나쁘다는 것도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이다. 이런 종류의 인신공격도 피고인이 무죄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논점일탈일까? 학생들과 토론을 해 볼 만한 주제이다.

이 영화에서 8번 배심원은 시종일관 논리적인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서도 논리적인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발언이 그것이다.

8번: 글썄, 이 애는 평생 학대받고 살았어요. 가난하게 태어나서 아홉 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위조범으로 감옥에 가자 고아원에 보내졌죠. 순탄한 삶은 아니었고 아이는 거칠고 반항적이죠. 왜일까요? 매일 맞고 자랐으니까요.

이것은 **동정심에의 호소**(*argumentum ad misericordiam*) 오류로 볼 수 있다. 그 아이가 동정심을 받을 만하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그가 무죄라는 증거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8번 배심원의 발언을 자비롭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는 바로 이어서 “18년간 고달픈 인생을 보냈는데 몇 마디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동정심 때문에 무죄를 평결하자는 의견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한 아이여서 억울하게 유죄로 몰릴 수 있으니 그의 편에서 또는 객관적으로 증거를 검토해 보자는 취지의 발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소년의 변호사가 있었지만 그는 소년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못하여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철회될 수 있음을 제대로 알아내지 못했다.<sup>16)</sup>

16) 최훈, 『변호사 논증법』 (웅진지식하우스, 2010)은 ‘변호사 논증법’이란 이름으로 동정심 또는 자비로운 해석이 논증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2명의 성난 사람들>은 논리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 입증의 책임, 철회가능한 증거, 대중의 의견, 편견, 인신공격 등 논리학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들을 생생한 예와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독립적인 논증이 아니라 등장인물별로 누가 논리적이고 누가 비논리적인지 종합적인 평가해 볼 수 있게 한다. 이런 훈련은 논리적인 사고를 배우는 논리학 수업을 넘어서서 대중 매체를 감상하고 평가하는 종합적인 시각을 길러준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대답해 보게 할 수 있다. (영화를 관람하기 전에 얹은 순서대로 배심원의 번호가 붙여진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 누가 몇 번 배심원인지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이 영화의 핵심 주제인 입증의 부담(의심할 만한 근거)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인가? - 가능한 대답: #8, #9, #11, #2, #4
- 이 영화의 핵심 주제인 입증의 부담(의심할 만한 근거)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인가? - 가능한 대답: #3, #7, #10, #12
- 편견이나 이익에 따라 입장을 선택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 가능한 대답: #3, #7, #10
- 토론을 방해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 가능한 대답: #3, #10, #12 (3번과 12번은 오목을 두고 있고, 3번은 발언의 순서를 넘어치고 있으며, 10번은 비밀 투표의 원칙을 어기고 있고 거리 측정을 방해하고 있다.)

이 논문은 논쟁의 논리적 측면과 대화적 측면에만 주목했다. 머리말에서 이 논문은 논쟁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담고 있다고 했는데, 논문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논쟁의 또 한 측면인 수사적 측면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려고 한다. 이 영화는 논쟁의 논리적 측면과 수사적 측면의 차이점에 주목할 수 있게 해 준다. 증거품인 칼은 독특하다는 점 때문에 강력한 증거의 역할을 했는데, 똑같은 칼을 쉽게 살 수 있다는 반박 증거를 제시하면 적어도 칼의 ‘독특함’은 더 이상 증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철회해야만 한다. 여기까지는 논쟁의 ‘논리적인’ 측면일 뿐이다. 그러나 8번 배심원은 처음부터 그 반박 증거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배심원이 칼의 독특함을 증거로서 받아들이게 둔 다음에 똑같은 칼을 탁자에 꽂아 보이는 극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반박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다른 배심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영화적인 재미의 측면과 함께 똑같은 증거가 수사적으로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영화는 좁은 방에서 진행되는 대화가 대부분을 이룬다고 말했지만, 대화를 넘어서는 영상적인 기법도 자주 사용된다. 예컨대 배심원들의 심의가 진행된 날은 아주 후덥지근한 날이고 소나기까지 내리는데 5번 배심원은 4번 배심원이 정장 차림인 것을 보고 이렇게 묻는다.

5번: 땀 안 흘리세요?

4번: 안 흘려요.

그런데 3절에서도 언급했지만 4번 배심원은 8번 배심원이 며칠 전에 본 영화 제목을 기억하지 못함을 지적하자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는다. 더운 날씨에도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땀을 흘릴 정도로 자신이 모순됨을 영상으로도 보여줌으로써 예리한 감상자의 시선을 잡아끈다. 그 외에 1번과 8번이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함께 창문을 내리는 모습은 위기 상황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토론이 끝나는 장면에서 8번이 3번에게 옷을 가져다주는 장면은 가장 침예하게 대답했던 두 사람이 화해하는 모습인데, 이런 장면들도 영화적 기법으로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이런 장면들은 단순히 영상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토의를 통해 의견 차이를 해소한다는 화용-대화론의

논증의 목표를 구현하는 한 장면으로 볼 수도 있다. 화용-대화론에서는 논증을 단순히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언어적 구성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물론 논리학 시간에 논쟁의 수사적인 측면이나 영상적인 기법까지 가르쳐야 하느냐 또는 가르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은 영상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므로 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수사적인 측면이나 영상적인 기법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도움이 될 것이다. 방금 말한 것처럼 그것들이 논증의 목표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원대학교)

## 참고문헌

- 최훈 (2005), “개인 동일성 수업에서 영화의 활용”, 『철학탐구』 18집, 215-236쪽.
- 최훈 (2010), 『변호사 논증법』, 응진지식하우스.
- 최훈 (2011), “무지에의 호소 다시 보기”, 『논리연구』, 14권 2호, 77-103쪽.
- 최훈·최승기 (2008), “논증 평가 기법 개발”, 『수사학』 9집, 173~197쪽.
- 코피·코헨 (2000), 『논리학 입문』, 박만준 외 옮김, 경문사.
- 최훈·남인용 (2010), “광고 논증의 논리학적 평가”, 『커뮤니케이션 연구』, 6권 2호, 82-117쪽.
- 박지희 (2012), 『논증활동의 화용-대화론(pragma-dialectics)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Pollock, J. (1995), *Cognitive Carpentry*, Cambridge, Mass: MIT Press.
- Schafer, Burkhard (2009), “Twelve Angry Men or One Good Woman?: Asymmetric Relations in Evidentiary Reasoning”, in Hendrik Kaptein ed., *Legal Evidence and Proof: Statistics, Stories, Logic*, Ashgate, 255-282쪽.
- van Eemeren, F. H. and Rob Grootendorst (2004), *A Systematic Theory of Argumentation: The Pragma-Dialectical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ton, Douglas (2007), *Media Argumentation: Dialectic, Persuasion, and Rhetori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2 Angry Men and Logical Thinking

Choi Hoon · Choi Seung Ki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we can find some useful logical concepts in 12 Angry Men and make students to practice logical thinking using it. In section 2, we explain how important the burden of proof is in this movie. After deciding who has the burden of proof, the argumentation starts between protagonist and antagonist. In section 3, we examine the process of the argumentation by using the ‘defeasibility’ of argument. Some fallacies which we can find in this movie are proposed in section 4.

**Key words:** *12 Angry Men*, movie, logical thinking, reasonable doubt, pragma-dialectics, defeasibility

최 훈 e-mail: choih@kangwon.ac.kr

투 고 일	2012년 04월 15일
심 사 일	2012년 05월 12일
게재확정	2012년 05월 21일